부산문화회관 개관 15주년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30주년 제49회 정기공연

The 49th Subscription Performance of the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흰나비의 꿈

the Dream of White Butterfly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MBC 부산문화방송

협찬 주식회사 비락

2003.6.13(금)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3 부산시립무용단 607-6118

인터넷예매 www.bsculture.busa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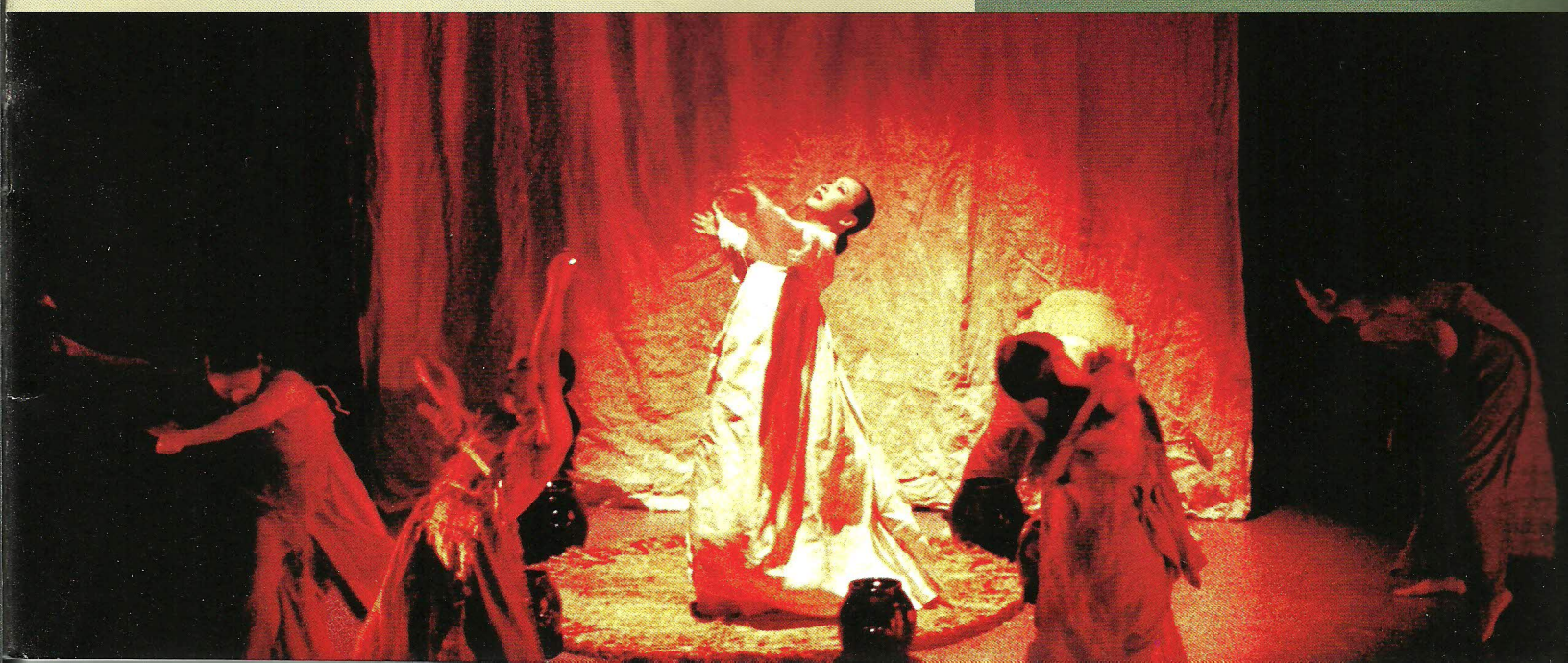
제작 STAFF

안무 · 구성 / 홍기태
훈련지도 / 이윤혜
장래훈
대 본 / 황해순
연 출 / 조주현
음 악 / 하경희

무대디자인 / 이대업
의상디자인 / 민천홍
영상미술 / 구성모

기획 / 박소윤
소품 / 안정숙
홍보 / 김장국
진행 / 서지영
김동숙
이화성
김진영

무대기술감독 / 권영준
조명감독 / 신상준
음향감독 / 전인수
무대감독 / 서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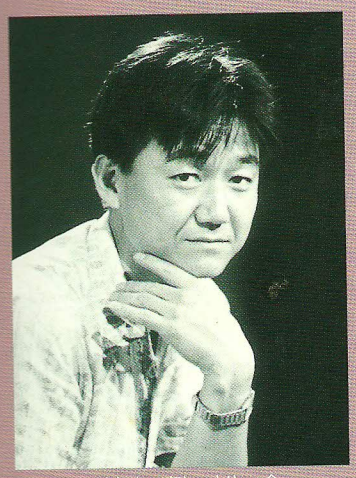
흰나비의 꿈

아스라한 바람결에
애린한 설화 보따리
지게 위에 동그마니
말없이 솔가지 꺾던
흰 주름진 손마음

아스팔트 빌딩 숲속
메마른 도심
꺾어줄 가지조차 없어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우리는 새천년 되살아난
고려장을 본다.

아파트 단지 너머
우뚝 솟은 산봉우리
휘황한 불빛 사이
웅크린 노인의 어깨로
하늘과 세상을 떠받친 건
산만이 아닐 것이라고...

텅빈 그 자리
흰나비 한 마리 훨훨



대본 황 해 순
(극단 자갈치 대표)

연출 의도

현대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는 사회 전반의 풀어야할 과제가 되었다. 의학의 발달로 인류의 수명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생겨났고, 그런 상대적 모순은 마치 현대판 고려장이라도 보는 듯 쓸쓸하고 우울한 현실이 되었다. 사회의 냉대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차디찬 외면과 적대심까지... .

나이를 먹는다는 것과 그렇게 늙어 가는 자연스러운 진리가 왜 이 시대에 이르러 서럽고 쓸쓸한 화두가 되었을까. '열흘 나비'란 말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열흘이란 짧은 삶을 사는 나비에 대한 비유이다. 정오의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한줌 빛 무리로 산화하는 나비의 죽음.., 그래서 나비의 일생은 처연하고 아름다우며, 알에서 애벌레로.., 꼬치에서 한 마리 나비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힘겹고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은 장엄하고 화려하기까지 하다.

이 작품은 그런 나비와 이 시대의 노인을 치환(置換)시켜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청년에서 중년으로.., 그리고 장년이 되기까지.., 그간 경주했던 부단한 노력과 각고의 시간들이 사회의 근간이 되고 또 초석이 되어 이 시대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존재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은 바람에서이다. 열흘의 짧은 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나비처럼 내 아이와 내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음과 생을 바쳤던 우리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름다운 날갯짓을 이제 무대 위에 올리려 한다.

연출 조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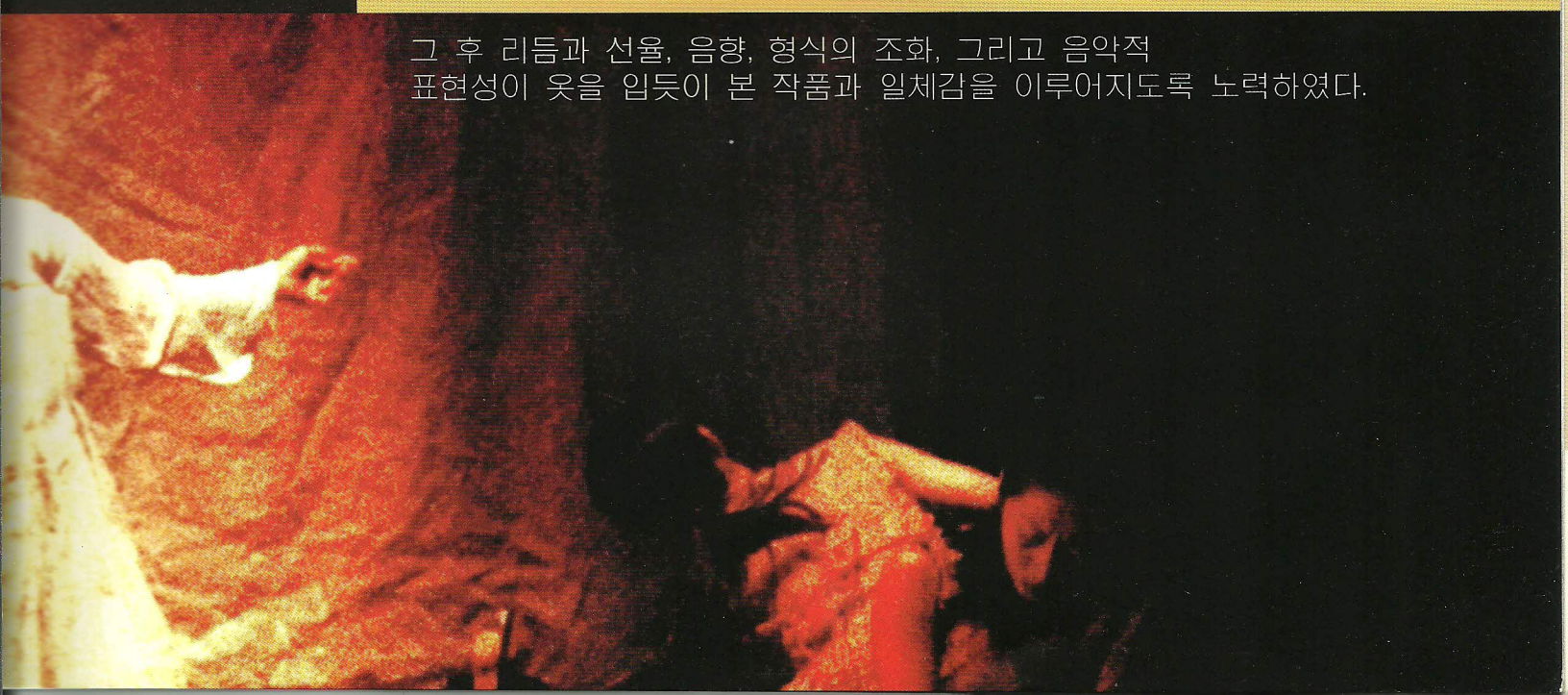
- 2002 부산아시안게임 개막축전 '허황후'
- 2002 서울시 무용단 정기공연 '긴 아라리'
- 2002 울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불새, 내 안에서 날다'
- 2002 이 시대의 무용가 '듀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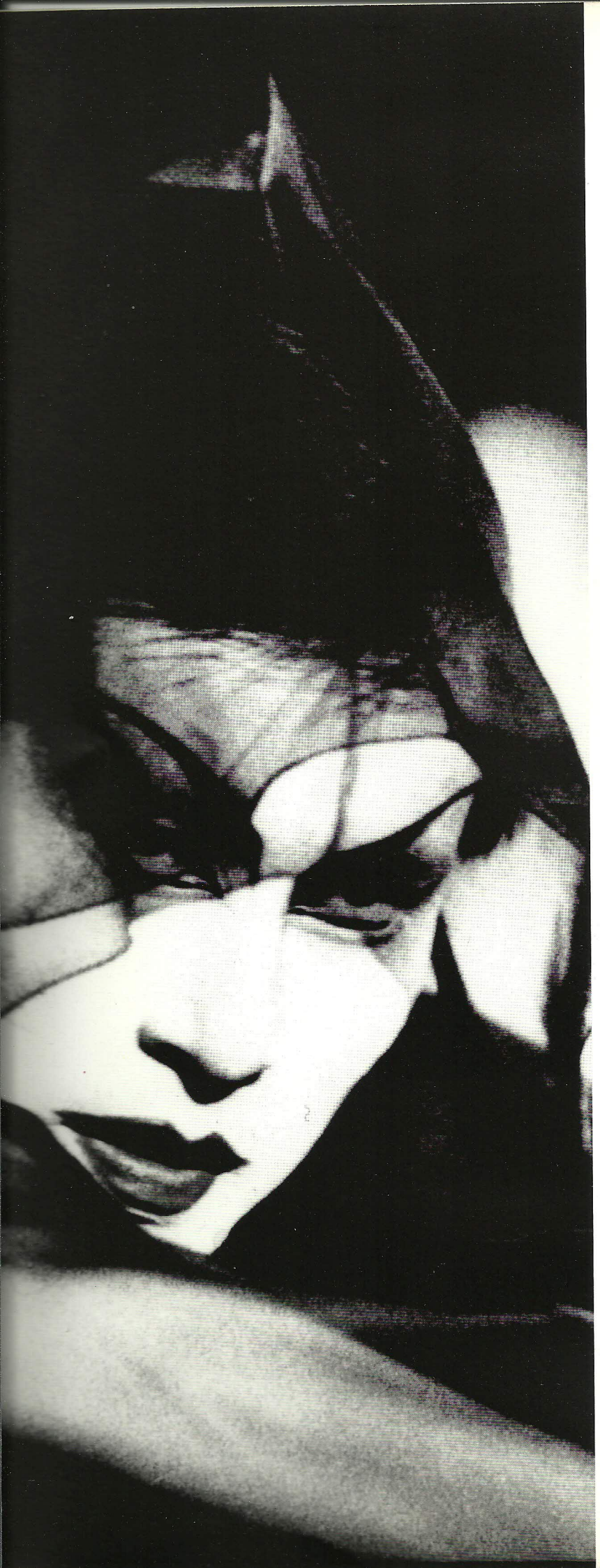
음악 이야기 하 경 희 (부산예술문화대학 실용음악과 교수)

무용음악작업은 대본, 연출, 안무, 무대, 조명, 의상 등 종합예술작업으로 나에게 작곡의 즐거움을 주는 일이다.

"흰 나비의 꿈"의 음악작업을 시작하면서 주제의 설정에 대한 대본작가와 대화나 무대 전체의 흐름을 엮는 연출의 이해, 그리고 무용수의 몸의 언어 표출을 위한 안무가와 대화 등을 통해 음악적 기초 소재를 발굴하였다.

그 후 리듬과 선율, 음향, 형식의 조화, 그리고 음악적 표현성이 옷을 입듯이 본 작품과 일체감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안무 홍기태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자)

안무 의도

거듭나는 것이다.
짧디짧은 시간동안만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허락 받은 나비의 생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나비는 알을 낳고
그 알은 여러번의 변태 과정을 거쳐
다시금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날갯짓을 한다.

그렇게 생성은 소멸과 맞닿아 있으며,
죽음마저 거듭나기 위한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세상살이 또한 그렇다.
내 자신보다는 내 가족을 위해
내 개인보다는 내 몸담은 사회를 위해
앞만 보며 뛰고 또 뛰다보니
어느덧 이마엔 주름이 깊게 패이고
손등은 가문 들녘처럼 굽고 헤졌다.
돌아보니 참 쓸쓸한 시간들만 회한(悔恨)으로 남고
돌아갈 수 없는 청춘의 기억만 아련함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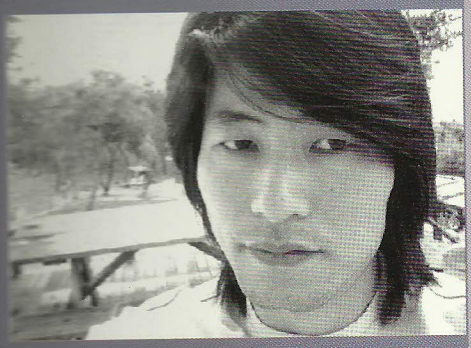
하지만 그런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런 인고의 세월은 고스란히
후대에 전유(專有)되어
또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그런 순환구조를 담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참신한 춤 언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무용수의 신체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개인의 몸선과 몸의 흐름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한국춤의 '정중동 동중정'의 묘미가
한데 어우러지도록
온화하고 부드러운 여성성과
빠르고 강렬한 남성성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어
관객에게 춤의 이미지가 확연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많은 단계와 오랜 시간들로부터
한 마리 나비는 탄생했고
이제 하늘 높이
그 아름다운 날개를 퍼덕이고 있다.
마치 내면 가득한 울림처럼..,
그렇게 간절한 비명처럼... .

무대미술 이대업

강미선 가인무용단 〈매혹〉.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2003
최창덕 〈수류사덕〉. 예악당 .2002
정신혜 〈결〉, 〈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2
임지형 현대무용단 〈천불〉.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2001



무대미술 이야기

이번 작품의 주요한 컨셉은 '나비' 와 '죽음' 과 '거듭남' 이다. 온몸을 옥죄고 있던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 일은 결코 쉽지도... 그리 만만치도 않은 힘겨운 자기와의 싸움일 터이다.

그런 상징들을 표현하기 위해 탄생과 죽음은 투명한 질감으로 접근했으며 소멸되어 다시 생성되는 윤회의 긴 고리는 무대 가득 휘날리는 만장(輓章)의 이미지로 풀어 보았다.

다시금 부화하여 산천 가득 아름답게 날기를 기원하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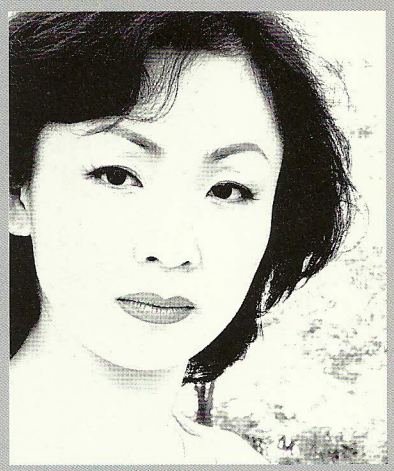
의상 이야기 민천홍

나비와 인생의 황혼에 대한 단상(斷想)은 무한한 변신과 끝없는 자기 희생이다. 빛이 없는 곳으로부터 무던히 참아 인내하며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짙푸른 하늘을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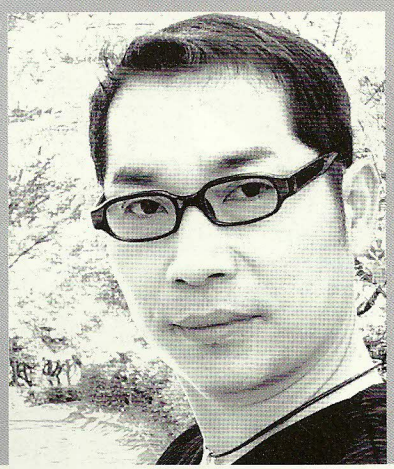
그 긴 세월...
인고의 세월은 그렇게 날개를 주었다.

'흰나비의 꿈' 은 끝없는 탈피와 기다림의 대유(代喩)인 때문이다.
이 작품의 의상은 그런 motive에서 출발하여 가장 한국적인 색감과 형태에 주안점을 두었고 탈피와 변화의 이미지를 활용한 홑 겹에서 한 겹씩 덧대어지는전환에 주력하였다.
"날개를 준비하는 나비의 마음으로 표현을 위한 표현을 준비하며…"

훈 련 지 도



이 윤 혜 (훈련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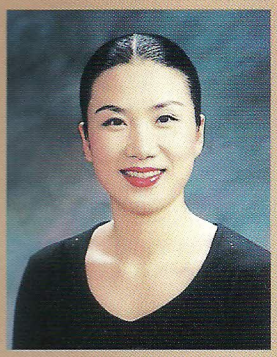
장 래 훈 (수석단원)

Soloist

솔리스트 이 성 원 (부수석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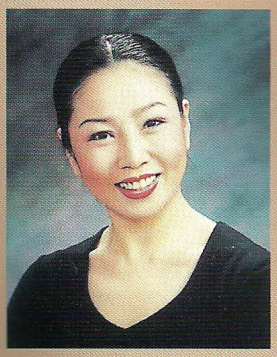
1965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몸으로 만드는 퍼포먼스에 관심이 많던 그는 정귀인 현대무용단의 〈동동〉 〈은아의 노래〉, 〈흙〉, 럭키 창작무용단의 〈황금가지〉, 〈윤사월〉에 객원 출연했으며 1991년 부산시립무용단에 입단하여 현재 부수석단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총 무 이 정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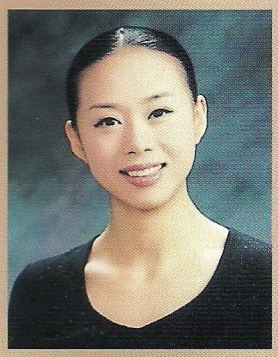


수석단원 서 현 미

수석단원 권 봉 정



부수석단원 장 해 정



부수석단원 김 현 숙

부수석단원 허 경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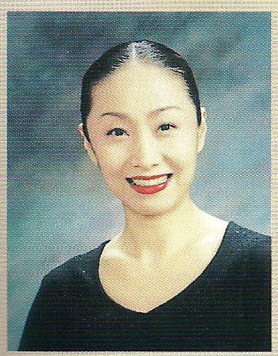
흰나비를 찾는 사람들...

강 휘 지

오 숙 례

이 현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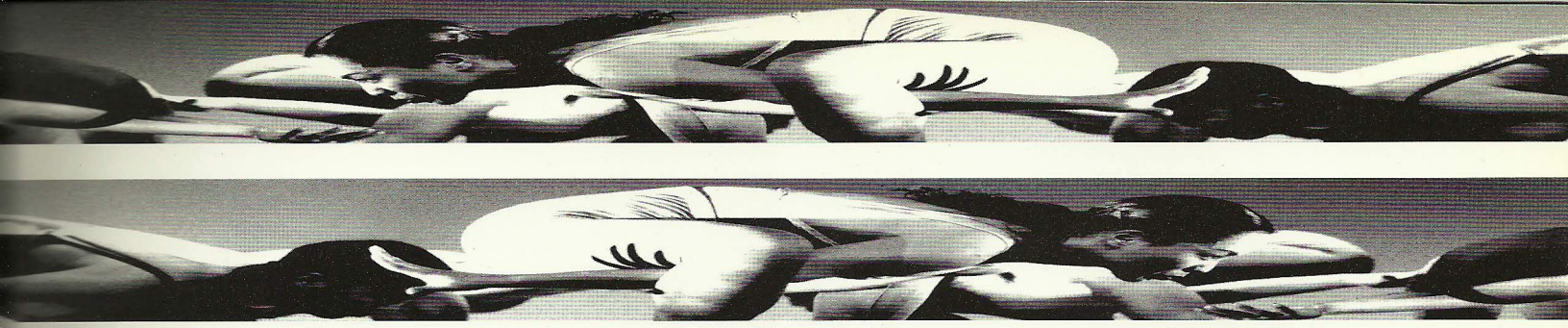
서 정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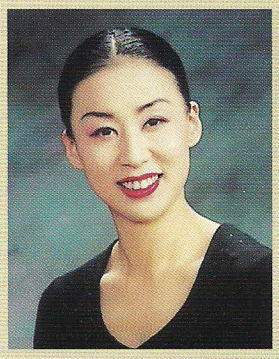
정 진 희

강 미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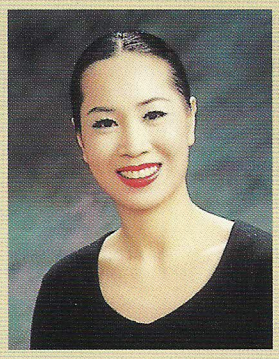
황 선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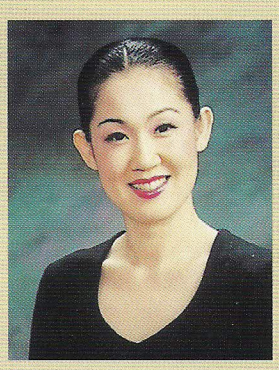
백조의 꿈 The Dream of White Butterf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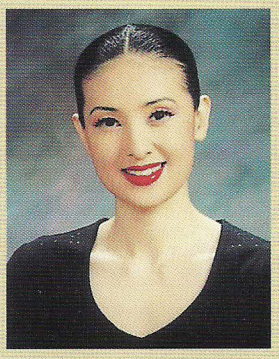
김 주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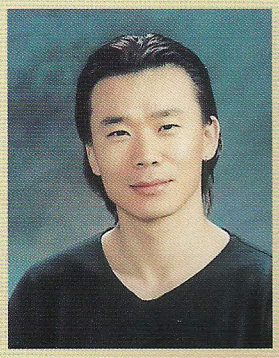
이 지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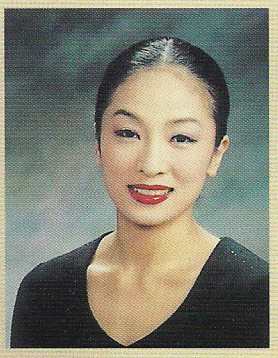
이 정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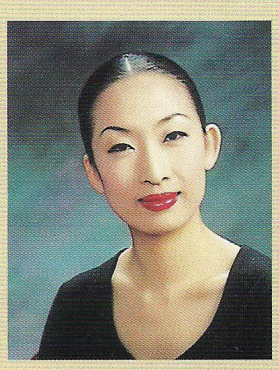
김 공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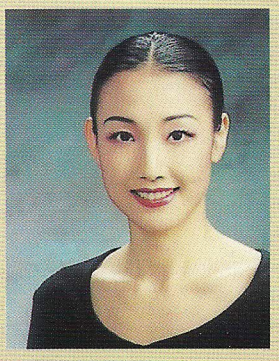
류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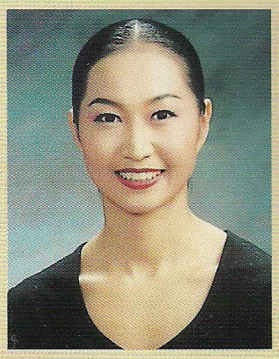
정 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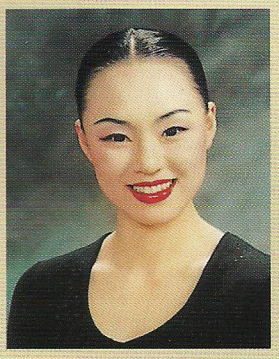
이 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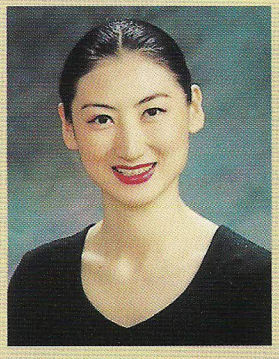
박 창 희



오 수 연



김 미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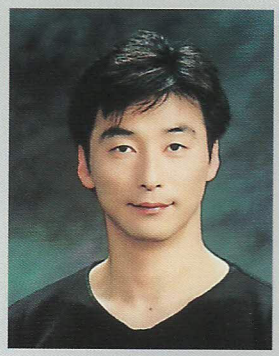


김 경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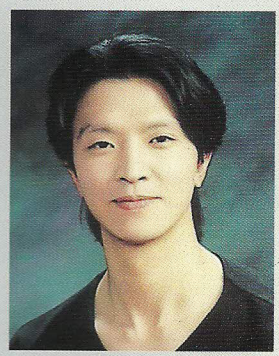
이 경 현

윤 은 하

이 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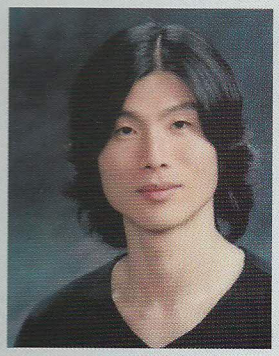


김 병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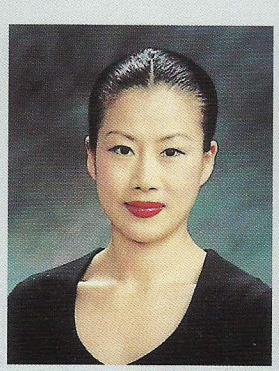


김 기 원

이 동 재



박 상 용



전 혜 련

강 모 세

흰나비의 꿈

the Dream of White Butterfly

특별출연

이 유 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대연초등학교 6년)

남 보 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광남초등학교 5년)

박 해 정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안민초등학교 5년)

기 획 박 소 윤 소 품 안 정 숙 홍 보 김 장 국